



2012 ISSUE PAPER

## 남녀공학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성의식 향상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환경 조성


수행과제명 |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강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 김동식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남녀공학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성의식 향상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환경 조성

수행과제명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강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김 동 식 연구위원

 Tel: 02-3156-7156

 e-mail: dskim@kwidimail.re.kr

### 요약

체육수업과 보건교육에 있어 남녀공학은 남학교와 여학교 보다 성인지적 관점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운동)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에 대한 인지 및 경험, 그리고 성지식과 성태도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남녀공학 체육 및 보건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교육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이 여성과 남성 청소년의 건강과 성의식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성인지적 교육환경 조성 방안은 제안함.

## 1 배경 및 문제점

- 우리는 청소년기가 2차 성징을 비롯한 신체적 성장을 통해 남녀가 서로 다른 생물학적 성(sex)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및 사회 구조 내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사회적 성(gender)임을 경험하고 인지하는 시기라는 것을 간과하곤 함.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남녀 청소년의 삶의 구조와 성역할 경험이 어떻게 다르고, 이를 통해 건강행태와 건강의 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이 필요함. 이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임.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사무소에서는 그 동안 청소년 건강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국가별 기존 청소년 건강프로그램 및 정책을 평가하고, 여성과 남성 청소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개입을 모색하기 위해 젠더툴(gender tool)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청소년 건강의 일차적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체육에 그동안 고려하지 못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기존 남학생 중심의 스포츠 종목을 여학생에게 맞게 변형한 뉴스포츠로 체육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반구축 작업을 시작하고 있음. 그러나 뉴 스포츠도 여러 다양한 체육수업 운영 방식의 한 부분으로, 현재 학교현장에서의 체육수업 운영 방식 및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이 어느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현장에서의 청소년 건강영역은 체육수업을 통한 신체활동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영역을 아우르는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음. 특히, 남녀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행태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물성적 성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학교현장에서의 청소년 건강증진 및 성의식 정책은 여성과 남성 청소년의 생물학적·사회적 성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체육·보건 등의 관련 교육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건강의 일차적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체육과 보건교육의 성인지적 접근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담당 교사 및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에 대한 인지 및 태도, 그리고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

##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 조사방법

■ 조사 모집단은 수도권 소재 남녀공학 고등학교 509개교이며, 이들 중 약 1/10인 50개교 정도를 조사 대상 학교로 정함. 이때 대상 학교는 지역불균형이 없도록 시군구에 1개 학교가 선정되도록 임의할당을 함. 단,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조사대상 지역에서 제외함. 조사 대상자는 학교별 체육교사 1명, 보건교사 1명, 그리고 2학년 중 1개 반의 남녀 학생으로 정함.

● 조사는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최종 52

개교가 조사에 참여함. 그러나 희망자에 한하여 조사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설문 응답자는 체육교사 52명, 보건교사 49명, 학생 1,057명이었음.

## 나. 체육 및 보건교사의 성인지적 교육실태 분석 결과

### 1) 체육교사의 성인지적 교육실태

#### ■ 성인지적 체육수업 운영 형태

- 남녀합반 체육교사 모두는 수업내용, 평가항목, 평가기준, 학습수준에 있어 남녀 청소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체적 차이와 관심 및 선호도 차이도 수업내용과 평가항목 및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 남녀분반 체육교사의 대다수는 평가기준, 학습수준, 신체차이, 관심·선호도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으나, 수업내용과 평가항목의 경우 과반수만이 성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 ■ 체육수업 운영 방식

- 남녀합반 체육교사의 과반수 이상은 수업상황에 따라 남녀를 함께 혹은 분리하는 ‘혼합형’ 수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음.
- 남녀분반 체육교사의 과반수 정도는 만약 남녀합반으로 체육수업을 한다면(혹은 과거에 하였다면) 수업시간 내내 남녀를 분리하는 ‘분리형’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하였다)고 응답함.
- 남녀합반 체육교사와 남녀분반 체육교사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남녀합반 체육교사가 남녀분반 체육사 보다 남녀합반의 취지에 맞게 수업운영을 생각하거나 실제 운영하기 위한 실천 노력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남녀합반 체육수업 시 우선 고려대상

- 남녀합반 및 남녀분반 체육교사의 약 3/4은 ‘남녀 모두’라고 응답함. 특히, 여성 교사(87.5%)가 남성 교사(68.8%) 보다 응답율이 높았음.
- 그 주된 이유로는 수업이 어느 특정성에 편중될 경우 다른 성의 동기 및 흥미를 저해할 수 있고, 수업을 통해 서로 다른 성 간의 배려와 기능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수업은 남녀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 등의 의견이 있었음.

■ 남녀합반 체육수업 시 우선 고려 사항

- 남녀합반 체육교사는 주로 ‘관심 및 선호도 차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녀분반 체육교사는 ‘체력 차이’라는 응답함.
- 남녀분반 교사와는 다르게 남녀합반 교사는 눈으로 확인되는 남녀의 체력적·신체적 측면 보다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떤 체육종목에 관심이 있고, 어떤 체육유형을 선호하는지 등의 체육수업 운영측면과 실행 가능측면을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인지적 체육수업의 필요성

- 대다수의 체육교사들(남녀합반, 남녀분반 모두)은 기존의 체육수업이 여학생의 체력향상과 수업참여를 높이는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체육수업에 남녀 학생들의 신체적 특성 및 관심과 선호도 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음.
- 그렇지만, 체육수업 시 남녀를 단순히 구분하고 동일성의 교사를 통해 수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남녀의 체력증진 및 수업참여 향상 등의 효과성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여학생의 체력증진 및 수업참여 활성화 방안 의견

- 여학생들에게 체육활동(운동)이 왜 즐겁고,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그렇지만 단순히 이론적 교육을 통한 표면적인 내용전달 보다는 여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체육교과 종목을 선택하거나, 기존 종목을 변형하여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함.
- 또한 여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다이어트 및 몸매관리 등의 내용을 체육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

## 2) 보건교사의 성인지적 교육실태

■ 보건수업 편성 실태

- 총 47명 중 10명(20.4%)만이 학교에서 보건수업이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보건교육만 실시하고 있었음.
- 보건교육은 ‘강당(24.5%)’이나 ‘방송(20.4%)’을 통해 진행되며, 주로 ‘재량활동 시간(44.9%)’을 활용하고 있었음. 보건교육의 학습자료는 DVD 등 영상매체였고, 유인물을 이용한다는 의견도 12.2%를 차지하고 있었음. 보건교육의 주된 방법은 외부 전문가 특별강의였음.
- 보건교사의 51.0%는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학교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69.4%는 편성된 보건교육 시간이 부족하며, 55.1%는 관련 교재 및 교구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 남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보건교과 내용에 대해 보건교사의 38.8%는 ‘약물오남용 및 음주·흡연 예방’, 여학생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의 26.5%가 ‘성과 건강’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음. 실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보건교과 내용에 대해 보건교사는 ‘성과 건강’이라고 응답함. 그러나 보건교사의 대다수는 남녀 학생들의 약물오남용 및 음주·흡연예방, 성과 건강 및 정신 건강 등

에 대한 지식이 낮다고 응답함.

■ 성교육 시기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성별 관심분야

- 성교육 시작 걱정 시기와 관련하여 보건교사의 57.1%는 ‘미취학’이라고 응답하였고, 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의 약 80%가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라고 응답함.
- 성교육 내용 중 남학생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보건교사의 40.8%는 ‘성관계’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의 34.7%가 ‘이성교제’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남녀 모두 ‘피임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하였는데, 관심도의 정도는 여학생(22.5%)이 남학생(14.3%)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답함.

■ 성인지적 성교육 필요성

- 대다수(87.8%)의 보건교사들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성교육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이 학생들의 성의식 향상과 성폭력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하였고, 81.7%는 이를 위해 현재 학교의 성교육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보건교사의 42.9%는 ‘학생들의 성교육(성상담)을 위해 동성의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73.5%는 ‘남녀의 성의식 향상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남녀분반 보다는 남녀합반의 수업운영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96.8%는 ‘성교육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각각 동의함.

■ 청소년의 성의식 향상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개선 방안 의견

- 현행 선택과목인 보건교육을 필수교과목으로 전환하고, 그 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보건교육 내용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또한, 무조건 순결만을 강요하고,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교육철학을 지적하면서, 성관계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피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내실 있는 교육이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성의식을 높이고, 성(피임)에 대한 본인 의사 및 결정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3) 남녀공학 고등학생의 성인지적 체육수업 인지와 성교육 효과 분석 결과

#### ■ 남녀합반 체육수업 운영 및 내용에서의 성인지성 반영 실태

- 남녀합반으로 체육수업을 하고 있는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체육수업의 운영 및 내용에 성인지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관련 13가지 문항으로 조사함.
- 수업내용, 평가항목, 평가기준이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 응답을 하였지만, 이러한 것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은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는 비록 남녀공학 체육수업 시 담당 체육교사가 수업 내용 및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학생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임. 즉,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은 하고 있으나 현재의 체육수업의 내용과 평가항목·기준이 여학생에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판단됨. 이는 실제 체육수업의 시설과 관련 운동도구, 그리고 체육교사의 수업진행에 있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위주라는 응답이 여학생에게서 많다는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 학생과 교사의 성별에 따른 체육수업의 성인지성 반영 및 수준 차이

- 체육내용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여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응답은 남교사가 운영하는 체육수업의 여학생에게서 가장 많았고, 반대로 여교사가 운영하는 체육수업의 남학생에게서는 관련 응답이

가장 낮았음. 또한 체육수업 시설 및 관련 운동도구가 남학생 위주로 되어있다는 응답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였음.

- 이는 학생의 성별뿐만 아니라 교사의 성에 따라서도 체육수업의 내용, 평가항목·기준, 관련 시설 및 운동도구 등에서의 성인지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함.

#### ■ 체육수업에 대한 성별 태도 차이

- 남학생은 운동을 잘해야 하고, 체육시간에 쉬면 안 되며, 남학생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그러나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낮은 것은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고, 체육수업 시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항목 및 기준 역시 남녀가 달라야 한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음.
- 이 역시 현재의 남녀공학 체육수업이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남녀 학생의 체육수업(신체활동)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체육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성별 인지 차이

- 체육수업을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그리고 운동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음. 특히, 체력향상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여학생의 4배에 이룸.
- 체육수업의 효과성은 남교사가 운영하는 체육수업의 남학생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체육수업 운영 방식이 남녀합반이든, 남녀분반이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결과임.
-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체육수업을 통한 효과성 인지수준이 여학생보다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는 체육수업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남녀합반에서는 남교사가 운영하는 체육수업의 여학생보다 여교사가 운영하는 체육수업의 여학생의 효과성에 대한 인지수준이 조금 더 높음. 그러나 남녀분반에서는 반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남녀분반에서는 남교사가 운영하는 체육수업의 여학생이 여교사가 운영하는 체육수업의 여학생보다 체육수업을 통한 체력향상, 건강증진 및 운동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 경험이 다소 많다는 것임.

- 이는 아마도 남녀합반으로 운영되는 체육수업에서의 성인지적 개입은 남교사 보다 여교사에게서 더 강할 수 있으며, 남녀분반으로 운영되는 체육수업에서는 남교사가 여교사 보다는 여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체육교과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됨.

#### ■ 체육수업의 성인지성과 태도 및 효과성의 연관성 및 성별 차이

- 체육 수업내용,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여학생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은 실제 체육수업이 남녀의 신체차이, 학습수준 및 활동량이 고려되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응답함.
- 체육수업이 남학생 위주로 해야 하는 것과 남학생은 운동을 좋아하고, 또한 잘 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닌 여학생은 실제 남녀의 신체적 차이, 학습수준, 활동량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체육수업을 받는 경향이 높았음.
- 더 나아가 체육 수업내용,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여학생에게 불리하다고 인지할수록, 그리고 체육시설, 운동도구 및 수업진행이 남학생 위주로 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여학생은 실제 체육수업을 통해 체력향상이나 건강증진 및 운동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음.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체육수업에 성인지성의 반영여부 및 그 수준은 특히 여학생들의 체육(신체활동)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체육수업을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신체

활동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의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성교육의 방법 실태

- 성교육의 방법은 주로 강의식 교육이었고, 체험교육은 3% 미만으로 성교육에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었음. 그러나 실제 청소년이 원하는 성교육 방법에 대해 남녀 모두는 체험교육을 가장 많이 응답함.
- 이는 현재의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성교육이 지닌 문제를 절실히 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 성지식 및 성태도

- 남학생의 성지식 수준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특히, ‘피임은 성관계 후에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오답율은 여학생은 1/4인 반면, 남학생은 1/2으로 성별 차이가 가장 큼.
-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음. 그러나 개별 문항으로 살펴보면, 이는 여학생보다는 ‘남자는 남성적이어야 하고, 여자는 여성적이어야 한다’, ‘피임은 주로 여성이 하는 것이 좋다’, ‘성폭력의 원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남학생이,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여학생이 각각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상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결과를 볼 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지식이 낮고, 성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이거나 잘못 되어 있을 경향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음.

#### ■ 성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성별 인지 차이

- 전반적으로 생물학적 차이 인지, 성의식 향상, 성관계·피임·임신 및 출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여학생에게서, 그리고 본인과 타인

의 성에 대한 존중은 남학생에게서 그 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간의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음.

- 남녀 학생 모두 남녀합반 보다는 남녀분반의 성교육이 좀 더 효과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물론, 전술한 것 같이 성별 간뿐만 아니라 성별 내 수업운영 방식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는 않았음.

-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그리고 남녀합반 보다는 남녀분반의 성교육 운영이 좀 더 해당 교육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교육 효과의 연관성 및 성별 차이

- 전반적으로 남녀 학생 모두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보수적 성향의 태도는 낮으며, 성교육을 통한 효과성에 대한 인지 수준은 더 높았음.
- 특히, 성지식과 성태도의 상관관계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높았음. 또한 성에 대한 보수적 성향의 태도가 높을수록 성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지는 낮은 것으로 관찰됨.
- 이는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교육의 효과성과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실제 성지식은 성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도 알 수 있음.

### 3 정책제언

#### 제안1) ‘차별’이 아닌 ‘차이’를 교육하는 체육수업 운영 전환

-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남녀합반 체육수업에서 체육교사가 남녀 학생들의 서로 다른 신체차이, 학습수준 및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수

업을 운영할 경우, 남녀 청소년 모두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운동)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더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학생에게서 더 크게 관찰됨. 반대로 남학생과 다르게 여학생은 체육수업의 내용과 평가항목, 평가기준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지할수록, 그리고 체육수업이 남학생 위주로 진행된다고 생각할수록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의 재미와 즐거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는 남녀공학 체육수업에 있어 체육교사의 성인지적 수업운영이 남녀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 참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체육수업을 남학생 위주로 진행하거나, 남학생을 기준으로 평가항목과 관련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남학생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 참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그렇다고 남녀합반으로 체육수업을 할 때 관련 내용과 평가항목 및 기준을 무조건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본 연구에서도 체육수업 내용과 평가항목 및 기준이 남녀 학생에게 달리 적용된다 하더라도 남녀 모두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그리고 신체활동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의 인지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음.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체육수업의 내용과 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남녀 학생들을 차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남녀 학생들의 신체적 차이와 학습수준의 차이, 그리고 활동량의 차이 등 차별(discrimination)이 아닌 남녀의 서로 다름, 즉 차이(difference)를 인정하고 성별에 맞게 체육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함을 의미함.

## 제안2)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

- 본 연구를 통해 여학생과 신체활동에 대한 남학생과 체육교사의 잘못된 시각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여학생

은 운동을 못하고, 기피하며, 관심이 적다는 것에 대해 남학생의 응답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특히, 체육교사의 경우 여학생의 신체활동(운동)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실제 체육수업을 남학생 위주로 진행하거나, 수업내용과 평가항목 및 기준이 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었음. 이와는 다르게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체육시간에 땀이 나는 운동은 하지 않아야 하고, 대신 앉아 쉬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또한 신체활동(운동)은 건강한 생활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비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리고 여학생이 체육수업 참여가 낮은 것은 적절한 체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특히, 우리는 남학생과 다르게 여학생 경우, 체육수업을 남학생 위주로 하고, 여학생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못해도 된다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을수록 체육수업을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의 재미와 즐거움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음.
-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학생은 운동을 싫어하고, 기피하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며, 참여하고 싶은 체육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에 남학생과 일부 체육교사들의 눈에는 여학생은 신체활동(운동)을 싫어하고, 기피하며,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그 동안 남학생 중심의 신체활동(체육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그냥 지켜보던 여학생을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며 재미있어 하는 새로운 종목, 즉 뉴 스포츠 형태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임. 실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체력증진 및 체육수업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조사에 참여한 체육교사의 상당수는 여학생들이 즐겁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 종목을 변형한 뉴 스포츠를 가장 많이 제안함.

### 제안3) 성교육의 내실화 추진

- 현행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육은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로 선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과 의무성이 낮은 것이 현실임. 또한 성교육은 보건교육에 포함되어 있어 연간 교육 시수가 충분하지 못함. 물론, 보건교육의 내용 중에 대다수의 학교는 성교육은 의무적으로 하는 편임. 그렇지만,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임. 즉, 보건교육의 시수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학급별 소규모의 대면 형태의 ‘수업’이 아닌 체육관이나 강당 등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일방적인으로 강의이거나 혹은 아침 조례시간이나 점심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인 경우가 대다수임. 이러다 보니 성교육은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함.
- 실제 본 연구의 보건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보건교육이 편성된 학교, 즉 보건수업을 할 수 있는 보건교사는 관련 교육을 주로 해당 학급 교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교육이 편성되지 않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강당이나 방송을 통해 실시하고 있었음. 이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이 편성된 학교에서는 성교육의 학습자료로 영상매체 이외 관련 교재 및 체험교구가 많이 활용되나, 보건교육이 편성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영상매체에 주로 의존하거나, 상당부분 유인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았음.
- 물론 내실 있는 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관심과 보건교사의 교육역량 등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보건교육의 시수가 충분히 확보되느냐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들의 성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성의식과 성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임.



#### 제안4)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인식 및 성의식 향상뿐만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성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함. 즉,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성충동과 성관계 및 임신에서의 남녀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성의식이 높고, 본인과 타인의 성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음.
- 특히, 주목할 것은 성태도임. 성을 남성 지향적 사고로 보는 청소년보다는 성을 남성과 여성이 상호간 존중하며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청소년일수록 성의식과 본인과 타인의 성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인지 수준도 높았음. 이러한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높은 성지식 수준은 남성 청소년보다는 여성 청소년에게서 많이 관찰됨. 그렇다고 절대적인 성별 차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음. 왜냐하면 우리사회가 성을 여전히 가부장적 시각과 사고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성에 상관없이 사회학습 과정에서 습득하고 있기 때문임. 다만,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태도가 남학생에게 좀 더 높은 것은 생물학적·사회적 성 모두 상대적 우위의 남성성이 가정과 학교, 직장 및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 것임.
-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지식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 모두 성인지적인 성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성지식은 비록 높더라도 막상 성관계를 할 경우 혹은 했을 경우 피임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피임의 주체(대상)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었음. 실제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피임은 주로 여성이 하는 것이 좋다’와 ‘성폭력의 원인은 피해자(여성)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에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현재의 성(피임) 교육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 남녀의 서로 다른 성(피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고 물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따라서 올바른 성의식과 피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성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기존 성교육은 남녀를 동등한 대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많은 부담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마치 성은 여성의 문제이고, 여성의 성행태와 피임실천에 따라 성문화와 피임문화가 결정된다고 잘 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이러한 이유로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발언권은 무시당하기 쉽고,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감수하고 피임약을 과다복용하거나 낙태를 강요받기도 함. 이는 일차적으로 양성평등한 성의식 및 피임인식(성지식) 등에 대한 성교육이 어릴 적부터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임.

#### 4 기대효과

-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성의식 향상을 위해 여러 많은 대책들이 제안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물성적으로 추진되다보니 그 효과성과 실효성은 낮고, 남녀의 격차와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음. 본 연구결과는 비록 수도권 소재 일부 남녀공학을 대상으로 도출된 것이나, 체육과 보건교육에 있어 성인지적 개입은 남녀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성의식 함양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 교과목이 상호연관성이 높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다음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첫째,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교사와 보건교사의 수업 운영 방식과 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과 접근에 대한 정책적 논의 필요성을 제안함.
- 둘째, 현재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수업과 보건교육에서

각각 지닌 순기능을 상호 보완하여 개선된 교과과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 정보가 될 것임.

- 셋째, 기존 청소년 건강 관련 연구들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젠더와 성인지성을 고려함으로써 그동안 이들 인구집단에서 관찰되고 논의되었던 생물학적 성별 차이에 대한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다차원적 시각에서 청소년 인구집단의 젠더와 건강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건강 및 성의식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